

01 목회권면

교회 내 부속 예배실(식당, 4층)을 일부 개방하여 50명 미만씩 함께 영상중계로 주일 1~4 부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께서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광주제일명성교회’ 검색)

02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안내

지난주부터 현장예배로 재개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03 추수감사주일

을 한해도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10월 25일 추수감사주일로 지칩니다.
*감사의 시, 감사의 간증문을 공모하오니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21일까지)

04 온라인 교회학교

- ① 유치부: 카카오톡(오전 11:30)
- ② 초등부: 앱 ZOOM(중, 오전 11시)
- ③ 중고등부: 앱 DUO(듀오, 오전 9시) 실시간 예배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05 예배 안내

- 본 교회는 예배실 300석에 50명 미만 참석 규정을 잘 지키며 철저한 방역수칙으로 은혜로 온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 교회 입장 전, 열화상 카메라로 증상(발열, 기침, 인후염) 유무를 확인
 -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
 - 단체식사 금지, 공식예배 외에 소규모 모임 금지
 - 예배 전, 후로 소독과 방역작업 강화

06 온라인헌금

온라인으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십일조, 감사, 건축헌금 등 헌금 종류의 첫 글자와 성함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홍길동, 감-홍길동, 선-홍길동, 주-홍길동
*온라인헌금 계좌 안내 : 국민은행 633801-04-069570(광주제일명성교회)

07 온 교인 한마음 성경 필사

코로나 19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하여 11월 30일(월)까지 온 교인 한마음 성경 필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주위에 계신다면 권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강영모집사 : “가스 안심이(위디코)” 출시

- 1.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 2. 코로나19 종식과 의료진을 위하여
- 3. 제일명성교회와 광주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 4.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 5.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부목사	문성우, 박순영
전도사	김상태, 장중현
원로장로	최진호
은퇴장로	석용문, 윤동섭
시무장로	박인순
지휘자	강신모, 윤정민, 한경민
반주자	김범준, 김슬기, 박은영, 하은미

광주제일명성교회는 2014년 1월25일 창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명성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 하나이지만,
이 교회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10월 11일
7권 41호

* 여는 찬 양	주 기 도 문		
* 예 배 선 포	인 도 자		
* 찬 송	9장		
* 공동기도문	다 같 이		
*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찬 송	80장		
기 도	조근석 집사	이명호 집사	장재욱 집사
교 회 소 식 새가축환영	인 도 자		
성 경 봉 독	창 1:26-28		
	정윤옥 집사	김광재 집사	박정옥 집사
찬 양	문지연 권사	손막동 집사	김정인 집사
오늘의말씀	“땅에 충만하라”		
	윤호식 목사		
봉 헌	570장		
* 친 교	다 같 이		
* 송 영	진리와 생명되신 주(630장)		
* 축 도	윤호식 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오후1시

주 일 4 부 예 배			
찬	양		꽃들도
기	도		이원규
성	경		요 9:3-11
설	교		박순영목사
축	도		박순영목사

오후7시

찬	양		찬	양	팀
신	양	고 백		사	도 신 경
성	경	봉 독	...롬3:19-31...	인	도 자
설	교	전혀 새로운 길		윤	호식 목사
찬	송	321장.....	다	같	이
축	도		윤	호식	목사

10/12(월)	고후12:14-21
10/13(화)	고후13:1-13
10/14(수)	시24:1-10
10/15(목)	시25:1-22
10/16(금)	시26:1-12
10/17(토)	시27:1-14

주일 4부 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오후1시/본당)

■ 대표기도	1부	2부	3부
10/18	윤선례	황인순	최영식
10/25	최경란	정유진	박인순
11/1			

■ 성경봉독	1부	2부	3부
10/18	이종길	진은자	박경미
10/25	이혜숙	최현숙	김유림
11/1			

■ 지 난 주 등 록

■ 2020년도 등록자				
신주희	박선민	이미정	김지영	김일곤
최병주	윤미란	김원수	이향호	변춘식
심주원	진미숙	손미정	김성호	홍성인
남기해	이원규	심은숙	이응창	정희숙

1. 월례회 및 각종 모임

각종 부서 월례회 및 모든 종류의 모임을 중단합니다. 특별한 자침이 있기 전까지 공모임 뿐 아니라 교회 내 친교 모임 또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축복 받은 인생을 누리라”(베드로전서3:8-9) - 윤여권목사

코로나19는 전 세계 75억 명의 삶을 정지시킬 만큼 위력적입니다. 일상의 삶이 단 몇 주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강계하시고 가르치시고 바로잡으시기 위해 기근, 전쟁, 오역 등을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복음주의 설교자 존 파이퍼는 “하나님께서 오늘 코로나 사태를 통해 무수히 많은 뜻을 말씀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99.9%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톰 라이트는 “세상은 너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나를 의지하고 내게 도움을 구하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코로나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중한 사건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을 강고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교회와 예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성도가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박해와 탄압 속에서 격려와 위로와 충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8절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9절에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지만, 한마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리빙 바이블은 본문을 “너희는 하나의 큰 행복한 가정(One big Family)가 되라.”라고 합니다. 여럿이 하나가 되고 규모가 크고 행복한 가정으로 교회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하지만, 서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평가의 기준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 오래 살았는가 건강인가, 축복받았는가, 학위를 받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평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을 주고, 받고, 먹고 삽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자세는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한 마디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가 됩니다. +요13:34“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바울은 +롬13:10 “최고의 계명이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과 계명의 완성입니다.

+벧전1:14에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뜨겁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혼들리지 않는 것발은 것발이 아니듯, 불리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듯, 사랑은 뜨거워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움은 데일 정도입니다. 다. 그 뜨거움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미지근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인도를 한 수녀는 마더테레사 수녀에게 항상 실수만 하는 자신을 왜 잘 해주냐고 질문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기쁩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성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면, 성령님의 임재로 새로운 인격이 된다면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듯이 형제들을 모두 귀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 광주제일명성교회가 사랑의 뜨거운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는 원수를 욕을 감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 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은 자신뿐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이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사람으로 복에 복을 더 부어주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 십일조

강예식 김교민 김영설 김정인 김진욱 모영자 박승영 박장금 서승우 성기수
손막동 이선욱 이종길 이종부 이현규 이재원 장민자 정선영8 조근석 조옥순 차금미
채석진 한희자8 함계성

■ 감사헌금

강대희 강예식 강용중 강인환 권경자 김귀근 김미성 김영춘 김유림 김일곤
김정인 김지영 김학수 모영자 문다윗 문성우 문지연 박준우 오혜애 윤여권
이기선 이명호 이복순 이원규 이용창 이재원 이정환 이향실 이현경 장민자
장연실 장정순 정선영8 정영규 정진숙 조홍선 조은선 진은자 채석진 최영식
하상호 한옥희 두 명

■ 선교헌금

김학수 서승우 성기수 윤호식 정명희 정선영8 조미애 조옥순 황인순

■ 주정헌금

고동환 권영숙 김귀근 김만수 김지영 박인순 엄만유 윤동섭 윤선례 윤정민
윤준섭 이원규 이종길 이향실 제언희 차금미 최경란 최영식

■ 일천번제

김정혜 임채명

■ 장학헌금

강예식

온라인헌금안내

국민은행 633801-04-069570(광주제일명성교회) 예) 십일-홍길동, 감사-홍길동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가족의 건강과 자녀가 주안에서 잘 되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성전 옆으로 이사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러운데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아들의 취업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보금자리로 인도하옵소서. 가족 모두에게 평안을 부어주십시오. 항상 주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인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옵소서. 다시 한번 저에게 역사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 하옵소서. 온 가족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자녀들 끝까지 믿을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새로 시작한 일 번창하도록 도와주세요. 주신 터전에서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 섬기며 복된 삶 누리게 하옵소서. 심방 오셔서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온 가족 믿음으로 모여서 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교유의 명절 풍성한 열매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신앙회복과 건강 회복되게 하옵소서. 동생이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하옵소서. 소망하기 어려운 현실을 살면서도 믿음으로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보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남은 2020년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두 자녀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주옵소서.

	축 구	탁 구	바 독	족 구	등 산	불 링	실버합창
부장	장재욱	김교민	정성환	석용문	김학수	홍순자	채석진
총무	김병조	박인순	이종구	이승수	한상준	한경민	장복실